이 공부 하는 데는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음이 투철해야

☞ 21면에서 계속

놓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는데 그래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제발 좀 어떻게 살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글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 다섯 분이 다 그런 꿈을 꿨으니까 다섯이 모여서 그 얘기를 다 주고받고 난 뒤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여보게, 그 사람이 생전에 살면서 도둑질밖에 한 일이 없어. 그러니 그 해골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의식이 그렇게 동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해골을 파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저 바다에다 끼얹으세." 이러거든요.

또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 가루를 찧어서 바다에다 뿌리면 뭘 합니까. 그러면 그 의식이 바다에 다 떠내려가겠습니까?" 하니까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무리 바다에 말갛게 씻겨서 가루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 할지언정 어찌 그 의식이 씻어지리까."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분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렇다면 의식을 내가 집어먹겠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집어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다 말을 하기를 "자네가 삼킨다면 자네가 도둑질할 거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 나는 선비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긍지가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 근본에는 그 의식을 넣어도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을 선비로 만들더래요.

그러니 선비를 만든 것도 그렇지마는 누구나가 이 도리를 모르면 꼼빡없이 속지 별수 없어요. 선맥은 선맥대로 있는 거고 법맥은 법맥대로 있고 생명력은 생명력대로 있고,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의식적으로 자기 그릇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도리를 모른다면 이걸 커버를 못 하고 유동성이 없어서 굴릴 줄 모르니까 꼼짝없이 당했지 별수가 없거든. 그러고 난 뒤에 동네가 아주 맑고 청정하게 되돌아가고 잘사는 동네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장사꾼이 오고 가다가, 예전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섰습니다. 산 고개 몇 개를 넘어가야 물건을 해 가지고 가서 도부를 치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장에 가서 물건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니, 하루는 물건을 해 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오는데 해골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그 해골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올 수 없어서 묻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야.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갔다 오다가 묻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아, 발이 꽉 붙었단 말이야. 그렇게 발이 꽉 붙으니까 '이거 왜 내 발이 안 떼어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하! 내가 저거를 묻어 준다고 했다가 그냥 가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서는 쪼금 쉬었다가 한다고 그런 게 그만 홈빡 잠이 들었던 거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을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이 지금 삼십 년 만이다 이거야, 삼십 년. 그런데 거기서 삼십 년 동안 오고 가는 사람을 영 못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그럼 삼십 년 동안 여기 사람이 안 다녔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딴 데 묻혔었는데 우리 집이 지금 다 망했다 이거야. 그래도 선대로 내려오면서 선비 집이라 산소에다 묻었는데 지관들이 보고서는 그 터가 좋다고, 산 터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 거를 묻고 자기는 파서 여기다가 버린 것이 이렇게 굴러 굴러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니 그것을 파고 또다시 내가 그걸 뺏는다면 안 되니까 당신의 마음이 꽂히는 대로 양지바른 데다 묻어 준다면 내 그 신세는 안 잊으리다." 하더랍니다.

그래 인제 가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딱 발을 디뎠는데 그 발이 옴쭉거려지질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없이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목석같은 사람은 부처 될 자격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꼭대기에 아주 잘 내려다보이고 물이 흐르고 뭐, 좋아서 거기서 나뭇가지를 좀 꺾고 또 돌을 얇은 걸 주워다가 그 자리에다 그냥 묻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묻어 주고 짐을 지고 인제 턱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하는 소리가 "삼 년 후에 아무데 골의 아무개를 찾아가신다면 거기에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으니 그 자식들한테 그런 사실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당신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보따릴 놔도 살 수 있게끔 될 테니 그렇게 신세를 갚고자 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선, 자기가 잘살고 못살고는 떠나서, 하도 궁금해서 거길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서는 산소가 바뀐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나라에서 그 산을 다 파 버리고 그 해골을 찾았는데 있어야지. 나라에서 다 나서서 해골을 찾았지만 이이만 알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이가 찾아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꿈 얘기를 다 해 줘 가지고 발각이 나서 나라에서도 알고 그 집에서도 알고 그래서 그 해골을 파다가 산에 다시 묻었어요. 다시 묻고 그렇게 나라에서도 상을 내리고 그 집에서도 상을 내리고, 그래도 나라의 국록을 먹고 선비로서 대대로 내려오던 집이니까 망했다 할지라도 삼 년이 흐른 뒤에는 그래도 참 잘됐거든. 다시 국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종의 문서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따리 장사도 없어지고 그 고을에서 큰 집도 지어 주고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런 이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 여기 이게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군인 되시는 분, 이 대령인가 누구, 난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 공동묘지를 다 밀어 재끼고선, 즉 말하자면 해골이나 뼈를 다 주워서 그걸 각각 이렇게 해서 좀 태워 줬거나 또 각각 해 가지고 얻다 묻어 줬거나 이랬다면 또 별문젠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마 한데 전부 추려서 그냥 어디 한군데다가 묻었는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여기 사람도 죽기도 하고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밀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몸뚱이에다가 착을 안 뒀기 때문에, 이 송장이 지금 살아 있을 때 착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도 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동댕이를 쳐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거든.

그렇듯이 이 산맥도 역시 우리 인간이 상대성 원리로서, 우리가 상대성이 있으면서도 바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도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말을 하고 행하고 하는 그 속에, 공한 자체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산맥 하나하나가 어디고 그냥 살아 있지 죽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움죽거리지 않는 듯해도 쉴 사이 없이 움죽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도 그렇고 산 혈맥도 그렇고, '산 혈맥' 하면 혈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감각적으로나 지각적으로나 모든 게 훌륭하게 그렇게 같이 바로 대립이 된다는 얘깁니다. 대립이 되면서 바로 공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슨 큰일을 할 때도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녹음 안됨) 그러면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주 섭류의 이 활용의 돌아가는 이치를, 진리를 서로가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때로는 참, 누구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싱긋이 웃고 서로가 재미있게 웃을 수도 있고 서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노래는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곡이지마는 그 가사는 참 훌륭하게, 풍류스럽게, 말할 수도 없이 좋은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도 그 가사 한번 풍류스럽게 나오는 그 마음에서, 우주의 섭류와 저런 지상의 섭류나 지하의 섭류를 다 같이 수반을 하면서 노래가 풍류스럽게 나올 때 참,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를 모두 각각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도 삼 초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 년이 걸렸다는 그 뜻은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우리가 8·15 해방이 되고 너무도 겪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전쟁 아닌 전쟁을, 인간들이 사는 데서 또는 인간 이하의 생명들도 모두 전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죠. 생존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저런 땅보다도 이 흙보다도 못난, 나무보다도 못난, 새보다도 못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지능이 아주 좋지 못하면 요 지금 당장 자기가 생각한 상상력으로써 생각한 것만 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자기 집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도 모르고, 자기 부모가 어떡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시대에는 지금 앞으로 어떡해야 산다는 것도 생각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런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능이 아주 부족하다면 이거는 앞도 뒤도 생각지 못하거든요. 우격다짐이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백 프로 된다면 바로 물리가 백 프로고 물리가 백 프로라면 지혜가 백 프로고, 지혜가 백 프로라면 그 백 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앞뒤를 다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영원토록 자기의 씨를 뿌린 거 자기가 길러 낼 수 있는 영원의 그 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남녀를 막론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영원토록,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능, 자기의 지혜가 바로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구 놀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 하면 거기에서 백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나기가 어려워. 꼭 그 밥에 그 나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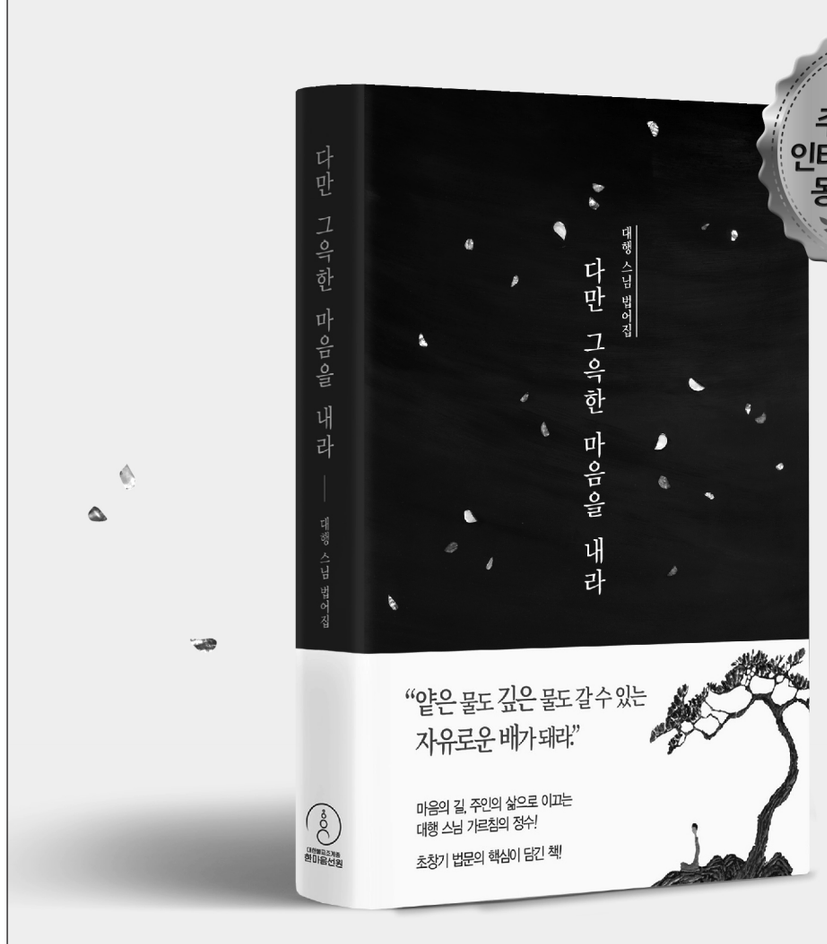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에는 말을 앵무새같이 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믿음이 참 투철해야만이 앞날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한편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도 여실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는 우환, 가환, 유전성 이러한 데, 또는 생사윤회에도 끄달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서도 또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 이거야.

길을 가다가도 건져. 한생각만 내면 건져져.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한생각만 내면 거둬져. 이게 무주상 보시라. 아니, 돈이 드니 못 해, 내 육신을 놀리니 못 해? 아름다운 한생각만 내 주면 다 보시가 되는 건데, 응?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계를 다 집어먹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다 건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만 알면 서슴지 않고 한생각 내 줄 수 있는 거죠.

'야, 난 중생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스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또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우리는 공부를 못 했으니까 이런 것도 못 하지.'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허술히 보지 말라 이런 소립니다. 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언제적에 사람으로만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도살장에 한번 안 가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남한테 밟혀 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이 그냥 어린애로 쑥 나와 가지고 어른 된 사람 하나도 없겠죠? 또 어린애로 쑥 나와 가지고 그냥 늙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 되기에 얼마만큼 시련을 겪었나를, 과학자들이 써 놓은 책을 여러분이 본다 하더라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8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